

감마을의 인심

中山 義*

내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는 낮은 산을 깎아 조성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는 지금도 공이 출몰하기도 한다. 그런 주택단지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다. 우리 주택단지가 세워지기 전에는 전형적인 시골이었겠지만 이제는 우리 단지 주민들의 산책 코스가 되었다.

그 마을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잎만 무성하지만, 가을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빨강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런 것을 머릿 속에 그려보면서 걸어가다가, 책에서 읽었던 한국의 글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감마을의 인심'이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인심이 펍 넉넉함을 이르는 말'이란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감마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나름 상상해 보았다.

어떤 한국의 오지, 오지의 시골. 산기슭까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늑한 작은 마을.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초가집. 그 앞뜰에는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감나무. 그리고 펍 순박하고 후하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나누어 주며 사이좋게 살고 있는 사람들. 푸른 산과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새빨간 감들.

이것이 내가 상상한 '감마을'의 모습이다.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그런데 '감마을의 인심'에 관련해서 하나 더 '까치밥'이란 말도 생각났다. 늦가을에 감을 딸 때 마지막 한 개까지 따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는 까치 따위의 날짐승을 위해 남겨둔다. 이것을 '까치밥'이라고 한다. 예부터 한국에서 까치는 '길조'라고 한다. '아침에 까치가 날아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다.

겨울이 되면 산이나 들은 눈으로 온통 덮혀 버리고 먹이 찾기가 어렵게 될 무렵, 까치가 먹이를 찾아 날아와 감나무에 앉아 감을 쪼를 것이다. 그러다가 까치가 온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멀리 객지로 떠난 자식들이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까치밥에는 단지 까치들의 먹이만이 아니라 이런 깊은 뜻도 담겨 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교외에는 숲 대신에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다. 반면에 감나무는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의 시골이 아무리 현대화되어 가더라도 '감마을의 인심'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산보한 오늘이었다.

내 일기장

湯澤 葉*

“고민! 고민! “나는 요즘 고민중이다. “왜? “무엇을? ”

사실은 지난 번에 한일 교류 에세이 컨테스트의 전단지를 봤기 때문이다. 나는 한 일년 전부터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다. 그 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즐거운 일이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하여 보거나 느낀 것이다.

“어느 이야기를 할까“내가 썼던 이야기를 다 말하고 싶지만 아주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다. “어떡하지? “맞다! 우선 내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

-위험한 동사-(2014년 4월 4일 일기에서)

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보는게 좋다. 그래서 나는 그런 드라마를 자주 보거나, 한국 티비 프로그램“우리 결혼했어요“도 매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커플은 샤이니의 태민이와 에이핑크의 나은이 커플이다. 태민이는 샤이니의 막내니까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지 않지만, 나은이는 태민이보다 어리기 때문에 태민이가 오빠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태민이와 나은이가 제주도에서 보트를 탔을때, 나은이가 나은이가 서 보자고 해서 둘은 서서 타고 있었다. 그 날 저녁에 나은이가 태민이한테 물었다. “그때 앉고 싶었어요? ” 태민이는 잘 못 듣고 나은이가 그 때 앉고 싶었냐고 물었다고 착각했다. “??? “(나은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대담하게 됐지?) 부끄러워하며 많이 놀라던 태민이를 보고, 나은이는 태민이가 잘 못 들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은이도 부끄러워졌다. 한국어 “앉다“하고 “안다“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ㅎㅎㅎ 위에서 말하는 동사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음 단어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일본어 “코다츠“이야기-(2013년 12월 12일 일기에서)

요즘 일본 문화도 한국에서, 한국 문화도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코타츠“를 사고 싶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사람이 “코다츠“라는 말을 할 때,“코다츠“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코딱지“(더러워서 미안하다)라고 잘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코다츠“를 사려고 하면 먼저 “코다츠“를 아는 것 같은 점원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내 일기를 다시 읽어 보니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게 되고, 내가 한국에 있는 기분이 든다. 일본에 있어도 일기장을 열면 거기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한국이 펼쳐져 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나는 일본사람이 한국을 가장 느끼는 말이 “오빠“라고 생각한다. 나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잘 어울리는 나이 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느낀 한국 - 제 2 장을 시작합니다-

坂ノ上 峰*

벌써 11 년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연가”에서 한류라는 붐이 이루어져서...

저도 그 붐에 빠졌던 한 사람이었고 그 드라마에서 배운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연가”를 보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 드라마에서 한국말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오지 않습니까!

한국어의 회화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 약간 심한 말투로 싸우고 있는듯이 들립니다. 하지만 “겨울연가”에서 나온 시집을 읽는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 귀에 부드럽게 들려 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어는 아시아의 프랑스어라고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연가”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한국어의 음색은 저에게 어떤 나라인지를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느 TV 에서 겨울연가에 관한 퀴즈가 있었는데 주인공인 준상이 시장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보여 드린 장면에서 한국사람이 보면 어색함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거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공이 식사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혼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사람이라면 혼자서 식사를 해도 괜찮고 영화도 혼자서 봐도 괜찮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답에 덧붙여 「한국사람은 혼자서 식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원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연가”를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이웃 나라 한국을 “알다”라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겨울연가”의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국여행을 시작해 10 년을 이상 다녀 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오감으로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말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국어로 작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한국어의 발음연습에 애를 먹으면서도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국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한류라는 붐은 웨이브가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그 10 년간을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앞으로 10 년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겠지요?

“겨울연가”가 열어 준 “알다”라는 제 1 장은 이제부터 “더욱더 가까이에 느낀다”라는 제 2 장을 시작합니다.

내 자리가...ㅏㅏ

福田 康*

이것은 입학시험이 끝난 두 딸을 데리고 홍콩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즐기며 홍콩 거리를 만끽했다. 하지만 여행 중에는 계속 날씨가 나빠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날엔 비도 그쳤기에 홍콩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심포니 오브라이트”를 보러 갔다. 홍콩 섬과 구룡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빅토리아만은 저녁 8 시가 되면 마주 서있는 빌딩에서 무수한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더 아름답다하고 한다.

우리는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찍 항구공원에 갔지만 이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3 명이 앉을 수 있는 돌층계를 찾아 양쪽에 딸들을 앉히고 셋이서 쇼를 기다리기로 했다. 쇼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나는 사진이나 찍으려고 일어서 바다를 촬영한 다음에 딸들을 찍어 주려고 뒤돌아봤다. 그런데 딸들 사이에 왠 낯선 아줌마가 앉아 있지 않는가?

아! 내 자리!! 갑자기 낯선 아줌마가 끼어들어 딸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줌마에게 비켜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자리라도 바꿔 달래서 두 딸을 나란히 앉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나라 말로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줌마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 다행이다! 이건 좋은 기회다. 내가 배우고 있는 한국어를 한 번 써 보자! “저기 혹시 한국분이세요?”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거는 나에게 그 아줌마는 흥미를 가지셨는지 “한국말 잘 하네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왜 우리 말을 할 줄 알아요? ”

“한국어 조금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봐요.” 나는 일부러 아줌마 양 옆에 앉아 있는 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줌마 호기심에 불을 붙였는지 아줌마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몇 살이니? 지금 학교는?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온 거야?! 그럼 애아빠는요?”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커녕, 같은 투어 사람들도 끌어들이며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었다. 나도 서투른 한국어로 열심히 대답했다. 일본은 지금 방학이라서... 애 아빠는 일이 바빠서요...

그 때 문득 나만 혼자 서 있다는 걸 깨달은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여기 앉아!”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일어서 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잖아? 그러나 그 아줌마는 달랐다. 앉은 채 자기 무릎을 양손으로 치며 “여기, 여기 앉아!”

그날 밤엔 날씨 때문에 결국 쇼가 중지되었다. 정말 유감스러웠지만 그 아줌마는 정말...! 충격적인 행동 덕분에 지금도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외국인을 자기 무릎에 앉혀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국 아줌마밖에 없지 않을까?

난 이일이 있은 후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한국 사람에게 왓지 친근감을 가지게 됐다. 다음에 한국에 가고 싶다. 아니 꼭 가야겠다. 한국이라면 내 상상을 초월한 아줌마, 힘과 용기를 주는 씩씩한 아줌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느낀 한국

兩角 美貴*

나는 불교 신자라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552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 전했던 분은 그때 백제의 왕이었던 성명왕이다. 나는 한국의 불교에 대해 원래부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한국에 여행할 때는 꼭 절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작년에는 세계유산인 두 절을 찾아갔다. 하나는 대구에 있는 해인사이고 그 절은 고려가 제작했던 대장경(불교 경전의 총칭)의 판목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절”이라고 불린다. 대장경판각에는 문이 없고 아주 많은 경의 판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랐고 감동을 받았다. 한국은 습기가 없어서 그런 보존 방법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사실은 그 판목으로 인쇄된 대장경이 도쿄에 있는 増上寺에도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습기가 많아서 그 경장은 일년에 단 하루만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나는 한국 여행한 후에 그 기회를 잡았고 増上寺에 그 경장을 구경하러 갔다 왔다. 고려와 일본의 깊은 관계를 느껴서 감개무량했다.

또 하나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이다. 그 절은 눈물이 나올 만큼 아름답고 분위기도 좋고 정말 인상적이었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참배자도 많았는데 참배하는 방법이 일본과 달라서 재미있었다. 한국식이 일본식보다 더 정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절이 1593년에 豊臣秀吉의 군대로 파괴되었고 대웅전 등 많은 목조건축물이 소실되었던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슬펐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는 알면 알수록 복잡한 데다가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도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에 있는 봉은사를 찾아갔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난 무늬만 불교지만 우리 딸의 대학입시 때는 그 절에서 열심히 기도했다”하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 절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23미터나 되는 미륵보살이 있어서 위용을 자랑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불상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큰 절에서는 유명한 불상들이 거의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역시 한국 불교문화와 일본 불교문화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은 개방적이고 일본인은 폐쇄적인지 모르겠지만 차이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험은 귀중하다.

나는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한국에 있는 33 관은 성지를 전부 다 찾아가는 것이다. 33 곳의 절들을 구경하면서 한국 전국을 구석구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루어지고 싶은 꿈이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생기면 33 관은 성지의 첫 번째 절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 곳은 석모도에 있는 보문사이다. 한국에는 아주 많은 섬이 있는데 나는 섬에 가 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크다. 또 재미있는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변에게 당당하게

後藤 裕*

“주변에게 당당하게”. 짧게 말해서 “주당”. 동아리 친구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다.

몇 년 전,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 못처럼 한국에 있으니 한국문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전통음악인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농악 동아리에 가입했다. 어학당이 있는 대학교의 동아리였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 좋아하는 일본가수가 있는 학생. 애니메이션이 최고라는 학생. 일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은 없는 학생. 교과서에서 배운 일본이 다 라는 학생. 일본은 라이벌이라는 학생 등등 내가 이제껏 일본에서 한국말을 배웠을 때에 만난 한국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이때까지 내가 만났던 한국 사람은 일본을 좋아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은 사람들 뿐이었다. 확실히 이곳의 동아리 친구들과의 만남은 신선한 느낌이었다.

나는 한국에 있을 동안, 한국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카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같이 지냈다. 한국의 전통 악기를 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MT(Membership Training)라는 것에 참석하여 밤을 세워가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익숙해져 갔다. 대학교 축제에서 비를 맞으며 악기를 치고 뛰어 놓고, 지방에 있는 농악 전수관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잤다.

친구들은 이모 같은 나이의 일본 사람인 나에게도 다른 새내기 학생과 똑같이 나를 대해 주었다. 한국말을 잘 못해도 동아리 친구의 하나로서 차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정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열정적이며 다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알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마음으로 통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라고 했던 친구의 한마디다. “일본 사람도 술 잘 마시구나. 우리와 똑같다.” 그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제껏 선입견을 갖고 있던 일본사람인 나를 받아들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까지 그의 머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써 믿어준 것과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 것에 기뻐했다. 그리고 나의 별명 “주당”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도 설명해 주었다. 여자로서는 부끄럽지만,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다.

그 후로 부터 7 년. 지금도 주당이란 별명을 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동아리 친구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내 자세가 당당하게 보인다고 지어 준 별명인데도, 나는 그들이야말로 주변에게 당당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들은, 내가 삶의 중심에서 멈추어 서 있었을 때 항상 내 등을 토닥거려 준다. 나도 그들처럼 항상 앞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당당히 나아가고 싶다.

<佳作 가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과 사랑도 있다는 것을

鈴木 智*

한일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바로 그 중 한사람이다. 나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등 일본 가족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가족이 있다. 내가 한국가족이라고 말하면 “남편이 한국분이세요?”라는 질문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한국 가족은 9년 전까지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다. 게다가 가깝도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계신 분들이다.

우리집 근처에 사는 한국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는 또하나의 가족이생겼다. 한국 가족이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경상북도 경산시라는 한국말을 모르면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KTX표를 사는 것도 기차를 갈아타는 것에도 악천고투했다. 그리고 일본말을 모르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한국말을 배우게 됐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지금은 KTX표를 사는 것도 가족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됐다.

일년에 한 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가족들의 얼굴을 보러 간다. "아빠 엄마 일본 딸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웃는 얼굴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며 반갑게 맞아 주신다.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밥을 먹고 아버지와 술 한잔 하며 많이 웃고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주 행복하다. 10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버지 대신에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아버지는 점심을 챙겨 주시고 내 빨래도 해 주시며 커피까지 끓여 주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공주가 된 기분이다. 정말 친딸처럼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드려 주시는 보모님시다.

올 3월에 우리 시아버님이 하늘 나라로 떠나셨다. 같은 시기에 언니의 시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연달 가족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부모가 여러 분 계셔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면에 이런 아픔들도 많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나보다 가슴이 아팠을 우리 남편이 잠깐이라도 한국에 갔다 오라고 말해 주었다. 남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한국가족을 보고 싶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경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친구 집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그리워서 가는 딸의 마음이었으니까 말이다. 지친 표정의 나를 보고 아버지와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많이 웃게 해 주셨다. 무엇보다 사랑을 듬뿍 주신 가족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깊어져 온 우리의 인연. 아무리 한일 간에 정치 문제나 역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그런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끈끈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사랑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과 사랑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와 닿는 진짜 가까운 나라가 될수 있기를 영원해 본다.

내가 느낀 한국사람

竹内 麻*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몰라할 때, 힘이 없을 때, 도와 달라고 투정 뿌렸을 때, 그 어떤 순간조차 남일 같지 않게 잘 챙겨 주고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 일본사람인 나를 마치 동네 친구처럼 대해주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냥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비롯해 내가 만난 아저씨 할머니 오빠 또래 친구들 모두 다 정이 아주 많고 안부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친구하고 사귀어 보니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나는 아는 오빠가 한 명 있다. 그 오빠는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 오빠하고 며칠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 그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았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오빠도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친구들이 다 노는데 나는 공부만 하고 왜 이려고 있을까? 내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그 오빠한테 내 속마음을 다 털어 놓았다. 그랬더니 그 오빠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지금 일본일초 이 시간을 최선을 다 해 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네 모습을 생각해 봐.” 정말 ‘때’라는게 있단다. “공부할 때 연애할 때 효도할 때.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할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니?”

그 오빠도 고등학교 3 학년 때 친구들이 다 놀 때 지금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더구나 또 조언을 해 주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십년 후 아니 삼년 정도만 지나서 너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걸.” 그렇게 말해 주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 막 울어버렸다. 나만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스스로 많이 민망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았다. 나에게 이렇게 잘 해 주다니. 오빠가 해준 그 말들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 오빠 덕분에 힘이 나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 내 사소한 고민까지도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해주고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알고 그 말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알게 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해주었는지를 전보다 훨씬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찡해지는 것 같다.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이야기한 오빠뿐만 아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비가 많이 오는데 호텔까지 데려다 준 아저씨가 어디 있을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정을 직접 느끼고 한국의 매력에 빠져 간다.